

Some Thoughts of “Conflict Entrepreneurship” and a (Better) Alternative: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August 17, 2023

Aloha MPC ‘Ohana,

It’s August 17, and time for another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I was recently listening to an interview on the radio with Russell Moore (a former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who was run out of that denomination for calling it to a higher standard of accountability on some ethical grounds). The interview I listened to, however, focused not on the SBC *per se*, but on the larger condition of church and society in the current moment.

The interviewer asked Dr. Moore about how polarized so much of America seems to be at present, and his answer was interesting. He said that he thought a significant part of the problem is rooted in what he called “conflict entrepreneurs.” That term – “conflict entrepreneur” – actually comes from a 2022 book written by Amanda Ridley. The term refers to those who deliberately sow the seeds of conflict in our collective public life, who then stoke and deepen the divisions, mistrust, and (often) misinformation which they’ve birthed, and who do so because they find it personally profitable (either in terms of money, power, influence, or some combination of the aforementioned).

Needless to say, neither Amanda Ridley nor Russell Moore are fans of “conflict entrepreneurs.” And neither am I, to be honest. When I see how divided Americans are, one group versus another, and when I see how divided many Christians are, one tribe versus another, it all just breaks my heart.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at a Presbyterian pastor like me and a Baptist theologian like Russell Moore might respectfully disagree about (finer points of doctrine, etc.), but in the interview with him which I listened to, I definitely agreed with him on this: the Church of Jesus Christ is not called to divide but to bring people together in Spirit of Jesus Himself.

And so, I’ve been trying to really focus on that lately. How can I be a uniter, a peacemaker, a bridge builder in my daily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Because the world doesn’t need any more “conflict entrepreneurs” (in my opinion), but it could certainly use a few more bridge builders in Jesus’ name. Amen?

Me ke aloha,  
Pastor Ron

“갈등 기업가 정신”과 (더 나은) 대안에 대한 몇 가지 생각: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오전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8월 17일, 또 다른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시간입니다.

나는 최근에 러셀 무어(전직 남침례교 총회 회장으로 일부 윤리적 근거에서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한 교단에서 이탈한)와의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인터뷰는 SBC \_그 자체\_ 가 아니라 현재 교회와 사회의 더 큰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면접관은 무어 박사에게 현재 미국의 많은 부분이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물었고 그의 대답은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분쟁 기업가"라고 부르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쟁 기업가"라는 용어는 실제로 Amanda Ridley가 쓴 2022년 책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용어는 집단적 공적 생활에 고의적으로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분열, 불신, (종종) 잘못된 정보를 낳고 심화시키며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돈, 권력, 영향력 또는 앞서 언급한 것의 조합 측면에서).

말할 필요도 없이 Amanda Ridley도 Russell Moore도 "분쟁 기업가"의 팬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한 그룹과 다른 그룹으로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부족과 다른 부족으로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와 같은 장로교 목사와 러셀 무어와 같은 침례교 신학자는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교리의 세부 사항 등), 내가 들었던 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와 확실히 동의했습니다.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나누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에서 어떻게 통합자, 평화 조성자, 다리 건설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더 이상 "분쟁 기업가"(내 생각에)가 필요하지 않지만 확실히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을 몇 명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알로하,

론 목사